"U대회 경기장 잡음 소통부재 아닌가"

광주시의회 임시회, 공기업 임원·측근 인사 놓고 공방도

강시장 "수영장 부지 예산문제로 재검토 불가피했다"

광주시의회는 28일 열린 임시회 시정 질의에서 민선 5기 광주시의 소통부재와 시스템 행정, 공기업 임원 인사 문제 등을 질타했다. 이에 강운태 광주시장이 직접 나서 시의원들의 질의에 적극 해명하면서 한때 공방이 일었다.

광주시의회 김보현(민주·서구 2)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민선 5기 시정의 핵심 비전으로 '참여와 소통의 자치공동체 건설'을 주창했으나, 불행하게도 오늘의 광주시정은 소통부재와 시스템 행정의 붕괴를 지적하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 대표적 사례로 U대회 경기장 입지선정과 RDF 사업 진행과정을 꼽았다.

김 의원은 또 "LED 사업과 전기자동차, 터치스크린 기술, 3D 관련 사업, 투광기 미국 진출사업 등 5개 역점사업 분야에 대한 문제제기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이나 반성이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사업들에 대한 사업성과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속하고 있는데다, 일부 사업은 공적 라인이 아닌 사적 인맥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며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전문기관 또는 별도의 투자유치나 해외진출관련 자문 시스템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김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며 "민선 5기 출범 후 역대 어느 때보다 시민과의 소통에 가치기준을 두고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아무리 완벽하게 하더라도 소통과 타협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를 경우 100%만족할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U대회 경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억울한 측면이 있다"라며 "전임 시장의 정책이어서 뒤집은 것이 아니라 수영장 부지매입에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서 열악한 재정여건상 재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기업 임원 인사와 측근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공방이 더 뜨거웠다.

홍인화(민주·북구 4) 시의원은 "광주시 공기업의 부적격한 인사는 정책실패와 예산낭비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취임 이후 인사에 관한 적재적소와 공정 원칙을 지켜 왔는데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 깊은 자괴심을 갖게 된다"며 "측근 보은인사나 문제 있는 공기업 임원 지적에 대해 동의할 수 없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 오히려 거론된 당사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나 명예훼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인사청문회 도입은 상위법에 저촉돼 전국의 다른 지자체가 시행을 못 하고 있다"라며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고 인사청문회 형태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다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보현(민주·서구 2) 광주시의원이 28일 오후 열린 광주시의회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 질의를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우주 정거장서 본 지구 오로라 미 항공우주국(NASA)은 국제우주정거장(ISS) 비행사들이 지난 17일 인도양 상공을 지나면서 촬영한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남극광)' 사진을 공개했다. 오로라는 주로 태양에서 방출된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대기로 진입해 공기 분자와 충돌하면서 빛을 내는 현상이다. /연합뉴스

불성실 국장 답변… 광주시의회 파행

"그럼 질문하지 마시라" 논란… 강 시장 사과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간부의 시정 질의 답변태도를 문제 삼아 강운태 광주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28일 본회의를 연기하는 등 파행을 빚었다.

광주시의회는 이날 오전 제20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이틀째 시정 질의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전날 신광조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논란이 되면서 1시간 넘게 회의를 열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간담회를 하고 전날 신 국장이 시정 질의 답변과정에서 추상적 표현으로 본질을 피해거나 의원을 비아냥거리는 듯한 말투를 한데 대해 문제를 삼고 강운태 광주시장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윤봉근 의장은 이날 오전 의원간담회 후 본회의 발언을 통해 "어제 신 국장의 답변 태도와 발언 내용은 저급하기 짝이 없었다"라며 "이는 시의회와 시민을 모독한 것으로 오후에 본회의에서 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오전 9시 30분에 열릴 예정이었던 2차 시정 질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이에 대해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 나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강 시장은 "신광조 국장의 답변과정에서 일부 답변이 부적절했고, 자료제출에 관한 해명도 적절하지 못했다"라며 "시장으로서 엄히 주의를 줬고 국장 본인도 답변과정이나 내용이 적절치 못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속개하고 시정질문을 벌였다.

이에 앞서 지난 27일 열린 1차 시정질의에서 조호권(민주·북구 5) 시의원과 신광조 국장이 폐기물 고형 연료화(RDF) 사업과 관련한 답변 태도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등 마찰을 빚었다. 조 의원은 답변서의 추상적 용어나 논리전개 방식을 일일이 거론하며 "시민의 대의기관을 상대로 광주시 국장이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국장은 "답변하는 간부에 따라 표현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다양한 수사를 사용하는 영국의회의 모습을 보면 부럽기까지 하다. (고형연료가 문제가 있다면) 아예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해 본질과 동떨어진 답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조 의원이 "이런 식이라면 국장의 답변을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발언하자 신국장은 "그럼 질문을 하지 말아야죠"라고 맞받아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간부회의에서 "일부 국장의 비아냥거리는 듯한 태도와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이 의원들의 신경을 거스를 수 있다"며 시정 질의 답변과정에서 간부들의 주의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 4개 공사·공단 부채 7000억원 넘어"

광주시 산하 4개 공사·공단의 총 부채가 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광주시가 홍인화(민주·북구 4) 광주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시공사와 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 김대중컨벤션센터의 총 부채는 7063억원에 달했다.

공사·공단별로는 도시공사가 6143억75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도시철도공사 876억6600만원 ▲환경시설공단 26억2700만원 ▲김대중컨벤션센터 13억4700만원 순이었다.

2009년도(7468억원)와 비교해 도시공사는 올해 부채가 40억 원 가량이 줄었고, 도시철도공사도 385억 원이 줄었다.

반면 환경시설공단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전년과 비교해 부채가 각각 15억원과 2억원가량 늘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기초노령연금 최저생계비 140% 기준 변경땐

273만명 연금 못 받는다

주승용 의원 분석

보건복지부의 기초노령연금 개편안이 정작 지원이 필요한 베이비붐 세대의 혜택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7일 보건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을 65세 이상 노인 70%에서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변경할 경우 2012년부터 향후 17년 동안 최대 273만여명이 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인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2년부터 2028년까지 연금 수급자격이 생기는 65세 이상 노인은 1035만명이다. 현행 안을 유지한다면 이중 70%에 해당하는 725만명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개편안대로 최저생계비 140% 이하로 지급 기준을 변경하면 수급 인원은 451만명에서 552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예측을 통해 최소 203만명에서 최대 273만명의 노인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복지부는 최저생계비 140% 이하의 노인 비중을 최소 55.1%에서 최대 62.1%로 예측한 바 있으며 개편안에 따른 예상 수급인원은 이 같은 예측치를 기준으로 도출된 결과다.

주 의원은 "정부가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을 변경해 수급자를 축소하려는 주된 대상은 노후 준비에 취약한 베이비 붐 세대"라며 "노인빈곤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불구 대상자를 축소하겠다는 것은 노인복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화순 폐광 산업융자금 지원 저조"

전체 9% 불과… 지역업체 불만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재균(광주 북구을) 의원은 28일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화순에 대한 폐광지역 대체 산업융자금 지원실적이 저조해 지역업체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감 자료를 통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1996년부터 지난해까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금 1708억원 가운데 50%인 860억5300만원을 강원도 태백, 정선, 영월, 삼척에 지원하고, 경북 문경에는 43개 업체에 전체 지원액의 33%인 557억6100만원을 지원했다"며 "반면 화순에는 전체 지원액의 9%인 145억3300만원만 지원돼 34개 업체가 융자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폐광지역 대체산업융자지원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결과, 경북은 243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나지만, 전남은 75명에 그쳐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다"며 "지역 간 균형을 위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軍소음 소송 이자 배상금 절반 육박"

군용 비행장이나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한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배상금의 절반에 육박하면서 재정부담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8월까지 발생한 총 소음소송 배상금 2971억여원이다. 이 가운데 한국은행 국고금에 대한 강제집행 형식으로 변제가 완료된 505억원을 제외한 2466억원이 국방부 예산으로 집행됐으며, 지연이자로 지출된 금액은 782억원이다. 이는 소송에서의 패소판결금인 1684억의 46.4%에 해당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KOSDAQ 코스닥상장법인
www.jaUtour.com
자유투어
광주지점 062)371-3757

마감임박
10월15일 단하루!
무안공항출발 방콕전세기!!

호남지역 출발
고품격! 초특가 상품 [준5성급]
- 타사대비 비교불가! -

무안출발 아시아나항공(OZ)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화,금)]
북경,만리장성 4일 399,000원
북경,만리장성,명13릉 5일 459,000원

무안출발 동방항공(MU)상품
[10/1~11/30출발(출발요일:화,금)]
상해,항주,소주 4일 419,000원
상해,항주,황산 4일 479,000원
상해,항주,황산,삼청산 5일 579,000원
상해,장가계,주가각 5일 949,000원

관광5일 589,000원
고품격JAU+ 관광5일 799,000원
품격 골프5일(54H) 1,099,000원
광양훼리 큐슈3박4일 199,000원
8/28~12/21(매주 수,일출발)

인천공항 출발
초특가 상품 -9,10,11월 출발기준-
- 자유투어만의 특별가격 -

유럽
서유럽3국(프,스,이) 8일 1,690,000원~
서유럽5국(융프라우) 10일 2,090,000원~
홈쇼핑HIT 동유럽 3국 7일 1,790,000원~
멜크 동유럽5국9일 1,290,000원~
터키 7대도시 완전일주 9일 1,690,000원~
알펜타워+서유럽6국12일 1,790,000원~
스페인,포르투칼10일 1,990,000원~
이집트,그리스,터키 11일 2,190,000원~

동남아
방콕,파타야 5일 449,000원~
세부 4/5일 349,000원~
보라카이 직항 5일 559,000원~
싱가폴 5일 659,000원~
5성급 캄보디아 5일 599,000원~
JAU+ 베트남 캄보디아 6일 549,000원~
베트남 북부 5일 449,000원~

중국
홈쇼핑HIT 북경4일(5성급호텔) 269,000원~
홈쇼핑HIT 상해4일(풀옵션) 349,000원~
계림(이강유람,관암동굴)4일 449,000원~
항공이동 서안,구채구5일 1,149,000원~

미주/남태평양
미동부+캐나다 완전일주 9일 2,690,000원~
미서부 3대캐년+미동부 완전일주 13일 3,290,000원~
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1,649,000원~
호주,뉴질랜드남북섬 10일 1,990,000원~
노팁 미서부,태평양일주8일 1,390,000원~
3대캐년 미서부완전일주 1,690,000원~

예/약/상/담
광천점 350-6226 | 북구점 267-8587 | 상무점 652-2974 | 수완점 574-1300 | 조선대점 227-8255 | 진월점 382-5353 | 첨단점 233-2627 | 충장점 222-9796 | 하남점 954-9700

서울시 중구다동 88번지 동아빌딩 5층,6층 ●서울시 중구청 등록 일반여행업 제39호 ●○표요금변동있음 ●일반여행업 영업보증보험 10억원가입(기획여행 심사에 따른 보증보험 5억원 가입) ●1억원 여행자보험 ●1급이상호텔(일부상품제외) ●최소출발인원(10명이상/인솔자동행 :일부상품제외) ●전일정식사제공(기내식포함) ●교통편 : 항공/버스/기차/선박 ●여행불편처리센타 1588-8692 ●환율변동에 따라 요금변동 있음 ※여행일정변경 시 사전에 여행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가격포함 내역]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경비 공항이용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가이드경비,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포함/유류할증료포함 (단, 자유여행상품은 미적용되며, 급격한 인상에 따른 유류할증료 금액 변동가능)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 : 상품 및 출발일에 따라 추가경비 및 선택관광이 있을 수 있으며, 각국 비자비용 및 고객의 선택에 의한 안내원 봉사료는 선택경비 사항이며 기사/가이드팁은 권장사항임.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및 홈페이지 참조